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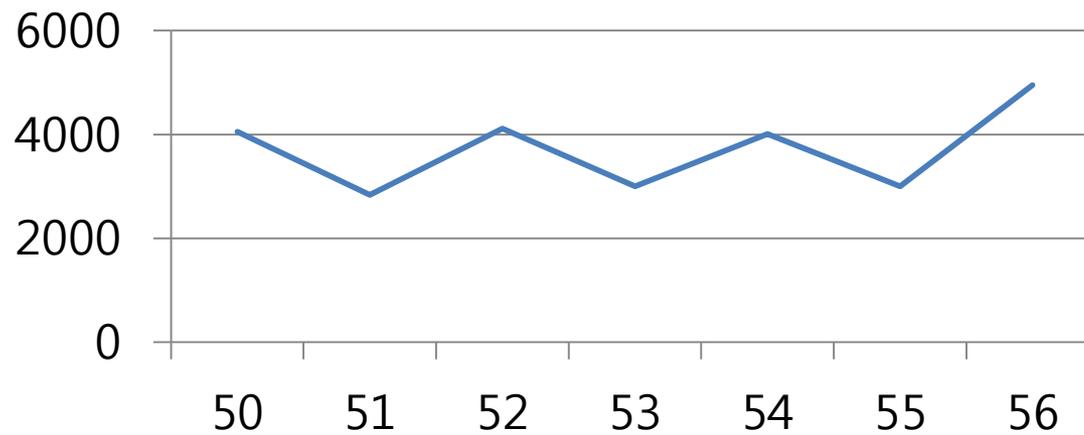
# 성공적인 세미나를 위한 전략

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학술위원회 상부팀장 이준행

# 내시경 세미나 현황

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학술위원회 상부팀장 이준행

# 양적 성장



# 세미나 진행 요원

- 사전등록처: 11명
- 현장등록처: 8명 (바코드기계4명 + 등록 4명)
  
- 이번 56회 세미나의 경우 기존 사전등록 인원보다 약 1,000명 정도 더 등록을 하여 사전등록처 직원을 4명 더 늘려 운영함.
- 사전등록처: 15명
- 현장등록처: 8명 (바코드기4명 + 등록 4명)

# 질적 성장

- 상세하게 평가한 적이 없음.

# 설문지 - 주제/내용

- Hands-on 확대 (colonoscopy, ESD)
- 초심자 강의가 더 필요. 상하부위장관은 초심자 위주의 세션을 떼어내어 통합 강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- 내시경 보험 관련 내용, 삭감 사례 분석
- 내시경 술기 이외의 약물치료, follow up 전략 등
- Local에서 할 수 있는 지혈술
- 위염의 분류
- 이물제거술, 천공 대처법, 내시경관련 사고 시 대처방법
- 강의 시간을 길게 해 달라. 증례 위주의 강의가 좋다.

# 설문지 - 간호 영역

- 내시경 소독 및 세척에 집중됨.
- 시술과 관련된 기본 용어, 적응증, 방법 등을 보조자 수준에 맞는 강의가 필요
- 내시경실 간호 행위 및 간호 술기 전반이 다루어졌으면
- 간호 강의를 한 곳밖에 없어서 너무 몰랐습니다.

# 설문지 - 진행 및 기타

- 교재에 사진과 도표를 많이 넣어 달라. 동영상 추가.
- Table이 없는 좌석이 불편하다. 식사가 불편하다.
-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.
- 주차장 부족
- 강의 슬라이드와 자료집의 일치
- A 룸 오후 강의에 자리가 모자라 바닥에 앉아서 청강하였습니다.
- 공항 pickup 버스 시간 조정

# 작년 워크샵을 돌아보면서...

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학술위원회 상부팀장 이준행

# 성공적인 세미나를 위한 전략

- 2016/4/29 내시경 집담회, 2016/4/30 학술위원회 워크숍 (광주)



# 성공적인 세미나를 위한 전략

- 2016/4/29 내시경 집담회, 2016/4/30 학술위원회 워크샵 (광주)

제안하였던 내용	성과
강의록, PPT 작성 가이드라인	○
선택과 집중 - 비록 참석자가 적더라도 special 세션이 필요	△
Meet-the-professor 세션 신설	X
세미나 책자의 화보화	X
책자 및 동영상 활용도 향상	X
위장내시경학회 benchmark	X

# 위장내시경학회 Benchmark 포인트

-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제 선정
- 중요한 강의는 길게, 간단한 강의는 짧게
- 강의를 제일 잘하는 강사를 선정한다.  
학교, 지역, 연배, 강의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.
- 질의 응답을 충실히 운영한다.  
질문지를 돌리고 수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

# 당면 과제와 개선 방향

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학술위원회 상부팀장 이준행

# 전략

- 세미나 분리 개최를 통한 down-sizing
- Flexibility 확보
- 우리는 공연 기획사 직원이 아닙니다.

# Down sizing - 필요성

- 서울 도심과 먼 킨텍스
- 참석자 대비 강의장 협소
- 책상 놓을 자리가 부족
- 작은 강의를 위한 강의장 부족
- 주차장 혼잡

그러나... 더 좋고 더 가까운 장소가 없습니다.

# Down sizing – 간호세미나 신설

- **간호 세미나**를 별도로 개최 (56회 세미나의 경우 간호사/보조사가 전체의 31% 차지. 1545명)
- 간호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
  - 소독과 세척
  - 간호업무 및 환자안전
  - 간호사 눈높이에 맞는 의학적 내용

# Down sizing – 초심자 세미나 신설

- 초심자 세미나를 별도로 개최
- 증례 위주의 실무적 강의 구성
- 매우 많은 hands-on program

# Down sizing – 수준별 세미나

- **상급자**의 경우 하루 종일 세미나 참석을 원치 않음.
- **중급자**는 상급자 프로그램과 교차 구성
- 오전: 상부 상급자 + 하부 중급자
- 오후: 하부 상급자 + 상부 중급자

# Flexibility 확보

- 꼭 20분이어야 하는가?
- 꼭 4명이어야 하는가?
- 꼭 4방이어야 하는가?
- 꼭 따뜻한 밥을 제공해야 하는가?

# 우리는 공연 기획사 직원이 아닙니다.

- 학회는 학문적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해야 합니다.
- 세미나 등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홍보하고 feedback 을 받아야 합니다.
- 지난 수년간 가이드라인이나 정책 토론회가 거의 개최되지 않아서 내시경 세미나 주제 구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-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학문적 깊이를 추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.
- 우리는 공연 기획사 직원이 아닙니다.


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